

# 한 세대 뛰어넘어 '시대'를 이야기하다



문화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는 2인전 '그리고 그리고다'의 송필용(왼쪽) 김성결 작가가 송작가의 대표작 '백아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송필용·김성결 2인전 '그리고 그리고다'

“미친듯이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작품인데 울컥하는 마음이 있네요.(웃음)” 문화예술공간 '집'(전남여고 앞)에서 만난 송필용(61) 작가는 작품 '백아산'을 한참동안 묵묵히 들여다봤다. 1990년대 초에 그렸으니 거의 30여년 전 작품이다. 끊임 거리는 생명감이 인상적인 '백아산'은 검은색이 주조를 이룬 묵직한 대작이다.

'백아산' 옆에 걸린 그림은 화려한 색감이 도드라지는 일그러진 인물상이다. 작가 김성결(31)의 작품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때론 기괴한 모습의 얼굴은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다. 두 작가 작품 모두 회화의 맛이 느껴지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그림들이다. '집'에서 열리고 있는 '송필용&김성결전-그리고 그리고다'(3월 24일까지)는 한 세대 넘는 나이 차가 나는 두 작가가 '시대와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다. 송 작가는 1958년생, 김 작가는 1989년생으로 특히 송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요즘 작품이 아닌, 1990년대 '땅의 역사' 시리즈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1990년대, 30대를 건너온 송 작가와 2018년 30대를 향해 가는 김 작가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조우하는 셈이다.

송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영암의 붉은 황토를 그린 '황토', 대표작 '물 시리즈'의 출발점인 '흐르는 물', 깊게 패인 주름의 농부 얼굴이 인상적인 '민초' 등 '땅의 역사'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김 작가는 대학시절 자화상으로 부터 출발한 인물 시리즈의 변용된 모습들을 전시하고 있다.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는 '집'의 문희영 큐레이터가 기획했다. “첫 출발은 중년 작가들의 옛 그림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송작가님을 초대키로 하고 초기작을 그렸을 당시와 비슷한 젊은 작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한 세대를 넘어선 두 작가가 바라보는 시대를 비교해 보고 싶었죠. 풍경이 주전시작이니, 인물화를 그리는 작가면 좋겠다 생각했죠. 회화성을 잃지 않고 그림으로 승부하는 작가들이죠.”

전시 제안을 받은 송 작가는 오랜만에 옛 그림들을 창고에서 꺼냈다. “기획 의도를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제 모습을 돌아보

## 송 “역사 현장·민초 얼굴 담았죠”

### 30여년전 '땅의 역사' 시리즈 전시

### 김 “사람의 이면 궁금해 인물화 작업”

### 3월 24일까지 예술공간 '집'



김성결 작 'Poker Face'

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네요. '땅의 역사'는 제 작품 활동의 근간이 된 시리즈죠.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광주에서는 선보일 기회가 없었죠. '백아산'은 이번에 광주에서 첫선을 보입니다. 좌우 대립이 극명했던 백아산은 만중들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역사가 담긴 저 산을 그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었죠.”

김 작가는 대선배와 전시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뭔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기존에 또래 작가들과 전시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흥미롭고,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신선하고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했구요.”

1980~90년대를 관통해온 송 작가의 이번 전시작엔 그 시대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당시는 자연스레 사회적 함의가 큰 주제, 역사와 삶 등에 대해 고민하며 그림을 그렸죠. 우둔하지만 한 눈 팔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갔던 시절이었습니. 동학에서 광주 항쟁까지 파노라마처럼 역사를 화폭에 옮기고 우리 모두의 얼굴, 민초의 얼굴을 담았죠. 이번 전시는 제 작가 인생의 밑거름이 됐던 작품들을 다시 보며 제 작품 철학의 기본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김 작가는 현대인의 초상을 통해 요즘의 시대를 그려낸다.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고, 서로 치유해가는 과정들을 담은 작품들이다.

“사람들은 만날 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저부터요. 그 사람의 이면에는 어떤 게 담겼을까 궁금해 인물을 그리게 됐어요. 나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진솔한 얼굴'은 뭘까 고민하면서요. '예쁘게' 그려본 적도 있지만 그게 불편해 더 솔직해지자 마음먹고 조금은 기괴한 얼굴들도 그리기 시작했죠. 앞으로 인간군상 작업과 풍경 시리즈도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 후배 작가'로 김 작가를 기억하는 송 작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력을 갖고 있다. 색깔도 지금 세대답게 자유롭고 인물들의 특징을 잘 잡아내 감각적이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들을 보고 왠지 모르게 슬픈 감정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화에 애했던 대화는 송 작가의 당부로 마무리됐다. “저희 시대 작가들이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없는 세계를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풀어내는 듯해 보기 좋아요. 작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대와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송 작가는 22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오는 3월 서울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조선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북경 99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등으로 활동했다. 문의 062-233-3342.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압해도' '떠나가는 배' 함께 불러요

###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9일 광주예총 공연장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 2월 행사가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예총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달 함께 배우는 가곡은 노항림의 시에 최영섭이 곡을 붙인 '압해도'다.

시인이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섬이자 꿈과 향수가 어린 섬인 압해도는 시인의 가슴을 적시는 위로의 섬, 전신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섬으로 기억되고 있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로는 '보리밭'을 시작으로 '언덕에서', '떠나가는 배' 등을 마련했다. 정다운 노래로는 '금강에 살으리랴다', '기다리는 마음'이 준비됐다. 사랑의 노래로는 '강이 풀리면'과 '강 건너 봄이 오듯'을 함께 부르며 꿈나무 연주로는 윤지수(교대부초 5)가 '나무의 노래'를, 이동하(장덕초 5)가 '꿈꾸지 않으면'을 선보인다.



조재경

회원연주로 김우진, 최선희, 장흥식, 심우호, 고평덕, 박화자, 정갑주, 고달영, 조성식, 김종래 씨 등이 참여해 '그대가 꽃이라면', '첫사랑', '황혼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등을 부른다.

그밖에 시낭송가 송성근, 김수하 씨가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를 낭송하며 초청연주로는 호남신학대학교를 거쳐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바리톤 조재경이 '벚꽃', '산악'을 선사한다.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운영 단체 모집

### 내일 3개사업 설명회

광주문화재단(대표 김윤기)은 2018년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운영단체 부분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창의예술학교운영사업' 등 3개 사업.

201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운영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해 모집하는데 올해 기획공모는 '대상특화형'과 '신규단체발굴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또한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눠 모집한다. 기획공모는 프로그램 운영 경력 3년 이상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5개 내의

를 선정하며 일반공모는 신진·중진 지역단체 대상으로 20개 내의 모집한다.

'창의예술학교운영사업'은 올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3~5개 단체가 1개조를 구성해 각 조당 사무국 운영단체를 중심으로 공동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을 지원한다. 20차시 내의 2개 과정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한편 3개사업 설명회가 7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혹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art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2일부터 23일(오전 9시~오후6시)까지 이메일(gjarte@hanmail.net)로 서류 제출하거나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소담방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1~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야기꽃도서관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 운영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 상주작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야기꽃도서관은 그림책 특화 도서관답게 '내 삶의 한 조각'과 '우리지역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책 창작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삶의 한 조각'은 지난 삶을 각자 돌아보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스스로 찾아내 수필 또는 동화로 만든다.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총 8회 진행한다. '우리지역 숨은 이야기'는 풍영정

에 얽힌 전설과 스토리텔링을 학습한 후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오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총 10회 진행한다. 진행은 이야기꽃도서관에 상주하는 정혜운 작가가 맡는다.

그밖에 '그림책놀이터', '팝업그림책', '창작 인형극단' 참가자도 모집한다. 무료 찾아내 수필 또는 동화로 만든다.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총 8회 진행한다. '우리지역 숨은 이야기'는 풍영정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한정식 아리랑하우스는 2월 14, 15, 16일 휴무입니다. 17일(토) 정상영업합니다.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